

# 근대 초기 항해 모험 드라마가 전유하는 기사도 로맨스의 현재적 의미\*

임 정 인

서울대학교

## I. 중세 기사도 로맨스와 근대 초기 항해모험담

중세 기사도 로맨스는 12세기 프랑스로부터 유래되어, 영국에서는 13세기에 자국어 내러티브로 정착되었다. 14세기에 그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으나 『아씨왕의 죽음』(*Le Morte Darthur*)을 정점으로 15세기 말을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진다. 이 장르는 전통적으로 “먼 옛날 먼 나라를 배경으로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동반해서 기사의 무훈을 다루는 얘기”로 정의된 바 있다(Loomis x). 그러나 20세기 중후반 이후 다수의 평자들은, 현존하는 작품들을 일관되게 아우르는 장르적 정의가 불가능하고, 이 장르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 역시 수립하기도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다.<sup>1</sup> 한편 그 가운데서도 문화와 장르 간 역학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평자들은 로맨스의 중심축을 이루는 기사 개인의 무용담과 궁정식 규범 간 상호작용에 공통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FR-2010-327-A00441).

<sup>1</sup> 이 장르의 연구방법론에 관해서는 Field,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9; Gaunt 46; Radulescu & Rushton 2-8; Radulescu 31-9 참조.

그러나 평자들이 로맨스 안 편력과 구애와 궁정 체제를 해석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 리 램지(Lee C. Ramsey)의 경우, 궁정 밖에서 세운 무공보다 궁정의 원칙에 따라 귀부인에게 구애하는 역할이 기사다움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궁정식 연애가 개인적 무훈을 통제하고 궁정 사회의 배타성을 구축하는 맥락에서 기사도 로맨스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4). 1990년대 후반 데이비드 번리(David Burnley) 역시 개인 편력의 공동체적 함의를 지적하면서, 용맹을 떨치며 재물과 여인을 획득하는 중세 기사의 이야기를 통해 궁정 사회가 통치 주체로 이상화되는 과정들로 기사도 로맨스를 이해한다(57). 반면 2000년 후반 로절린드 필드(Rosalind Field)의 경우, 대중 지향적 중세 로맨스(*medieval popular romance*)의<sup>2</sup> “전복적,” “영국적,” “사실주의적” 측면에 천착해서 개인적 편력과 기존의 궁정 권력 간 관계를 재검점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의 모험과 연애담은 타락한 봉건 궁정을 폭로하고 왕정 질서를 이상적 대안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opular Romance” 24-30).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함의와 함께 중세 기사도 로맨스를 포괄적으로 특징짓던 편력 무용담, 궁정식 연애 등의 모티프들은 중세 이후 문학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13세기 이후 영국에서 정착한 자국어 로맨스의 변천사에서 두드러지는 대중 지향적 로맨스들은, 기존 지배계층이 향유하던 상위 문화와 거리를 둔 채 사회적 터부를 욕망하는 내러티브를 후대에 물려주게 된다(McDonald 3; Radulescu & Rushton 1-8). 이 사회적 급기에 대한 도전은 우선, (제한적으로나마) 대안적인 환상을 꿈꾸고 기존 체제 내 모순을 표면화시키는 장르 고유의 태생적 특징으로도 일부 설명 가능하다(Kay 85). 하지만 이는 또한, 영국 중세 로맨스 고유의 대중 지향적 특성에 상당 부분 기인하기도 한다. 영국 로맨스가 프랑스 궁정 로맨스와 달리 “신분상승 욕구를 자국어로 공유하기 원하는 중위 계층 독자”를 가지고 있었으며(Pearsall 12), 앞서도 언급했듯 궁정 귀족 중심의 기존 신분 질서나 가치 체계를 전복하는 특징을 종종 드러내 보이기도 했었

<sup>2</sup> *medieval popular romance*에서 “popular” 부분을 “대중 지향적”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장르의 특징을 “귀족계층에 속하지 않은(non-aristocratic) 다수 독자가 향유함(their widespread appeal judged...through cross-references)”으로 규정하는 Radulescu와 Rushton의 연구를 따른 것이다(7). “popular(ity)”의 중의성, 즉 상류계층의 세련된 문화와는 무관하며 널리 퍼져 다수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장르적 특성에 대해서는 Field(“Popular Romance” 9)와 McDonald(2)도 같이 참조.

다는(McDonald 3-17) 기존 평자들의 지적이 매우 유용해지는 맥락이다.

그리하여 근대 초기 영문학 작가들은 종종, 당대 권력구조를 점검하고 새로운 권력 주체를 옹립하는 근거로 중세 기사도 로맨스의 모티프를 차용하곤 한다. 기사도 로맨스가 중세 봉건제의 유물로서 그 장르의 수명을 다한 이후에도, 편력 기사의 무용담과 연애기담들은 요동치는 사회에서 최적의 위치를 갈망하는 다수의 독자들에게 매력적인 환상유희를 구축해 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선녀여왕』(*The Faerie Queene*, 1590-6)이 예시하듯, 일련의 16세기 로맨스들은 모험 여행을 통한 신분 확립이라는 주제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종종, 주인공의 편력과 궁정 귀부인과의 연애담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 주인공이 진입하게 될 지배 계층의 정체성 자체를 재편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구조를 급진적으로 대체할 이상형을 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소위 대항해 시대로 접어든 작가들은 중세 로맨스의 초현실적 편력 공간을 대체할 또 하나의 이공간을 바다 건너 미지의 세계에서 찾는다. 해외 통상과 경영을 노리던 수십 개의 상회(*chartered companies*)들과 함께, 계층 간 이동에 대한 16, 17세기 독자들의 욕망은 이제 여행 기담이나 항해 모험담을 통해 확대재생산 된다. 근대 초기 지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증명하듯, 당대인들에게 바다 너머는 기괴한 위험들로 가득한 경이로운 환상의 세계인 동시에, 정확한 지명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벌 가능한 실재 공간이었던 것이다(Smith 70). 기사도 로맨스의 기저를 이루었던 편력을 통한 인생 역전에 대한 환상은 이제, 불공정 해상무역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영지를 확장한 결과 모국 내 상위 계층에 진입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식민주의 역정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항해 모험담 중에서도 존 플레처(*John Fletcher*)의 『섬나라 공주님』(*The Island Princess*, 1619-21)은 편력기사 연애담을 전유하고 변용함으로써 신혼 중간 계급(*middling class*) 중심 정치경제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근대 초기 드라마의 흥미로운 예를 보여준다. 특히 더 주목할 점은, 이 작품에서 식민주의적 해외 경영이 계층 간 이동의 필수 전제이며, 계층 간 이동은 당시 급부상 중이던 중상주의적 국민국가 담론과 상호보완적 연계 선상에서 재현된다는 것이다. 진기한 모험을 찾아 마법에 걸린 숲과 황야를 떠돌던 무명의 중세 기사는 여기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남아시아해를 떠돌다 향신료 무역의 본거지에 상륙하는 출신성분 불분명한 포르투갈 사내로 탈바꿈한다. 이전의 기사가 초인적 악당으로부터 아리따운

귀부인을 구하면서 용맹을 입증해야 했다면, 이 사내는 포르투갈의 이름으로 규합한 무장 상선단의 비호 아래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섬나라 공주를 기독교도로 개종시켜 결혼한 후 왕국의 계승자가 된다.

이 작품의 식민주의적 극중 논리에 대해서는 최근 비평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sup>3</sup>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편력 기사 모험담을 통해 기존 궁정인 중심 지배질서가 폐기되고 해외 무장 상단이 주도하는 국민국가 건설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포착하고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II. 『섬나라 공주님』

『섬나라 공주님』은 1619-21년 경 씌어져, 1621년 제임스 1세의 궁정에서 킹즈맨 극단(the King's Men)에 의해 최초로 상연되었다(Williams 541).<sup>4</sup> 이는 스페인 작가가 기록한 말루쿠(Malucu Islands)<sup>5</sup> 정복기를 토대로 프랑스 작가가 창작한 원주민 공주의 연애담을 플레처가 희비극으로 재각색한 작품이다(Williams 543). 플레처의 드라마는 전적으로 남주인공 아뮤지아(Armusia)의 입지전이다. 그는 “명예를 좇아 모험을 찾아 나선 길에”(search of honour, to seeke adventures; 1.3.7-8), 부귀영화(“riches,” “beauties,” “prides and wonders,” “the spices,” “pearles,” “thousand unknown gems, and thousand riches”;

<sup>3</sup> 이 작품의 식민주의적 환상에 대한 기존 논의는 Im 219-58; Loomba, “Break her will” 68-108; Neill 99-132; Raman 131-61 참조.

<sup>4</sup> 이 논문이 사용하는 텍스트는 John Fletcher, *The Island Princess. The Dramatic Works in the Beaumont and Fletcher Canon*, ed. George Walter Williams, vol.5 (Cambridge: Cambridge UP, 1966)이다. 작품의 창작 및 상연 시기와 작품의 원전들에 대해서는 Williams가 쓴 이 텍스트의 서문(541-4)을 참조한다.

<sup>5</sup>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군도로 말레이 제도의 일부이며, 몰루카 제도(the Moluccas), 스파이스 군도(Spice Islands) 등으로도 불렸다. 14세기 이후 술탄 치하의 군소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터네이트(Ternate)와 티도어(Tidore)가 주요 세력을 이룬다. 양국이 15세기 이후 향신료 무역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중 각각 외세를 끌어들이며, 16세기 초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16세기 말에는 영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17세기 초반 이후로 네덜란드 해상 무역의 거점이 된다. 15-17세기 세계지도들에 몰루카 제도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점은 향신료 무역에 대한 당시 유럽 국가들의 관심도를 반영한다. 이상은 Milton 9-41을 참고 요약함.

1.4.10-34)를 약속하는 몰루카 군도에 상륙한다.<sup>6</sup> 이후 원주민들을 정복하고(“end with manly force”; 2.2.17) 그 대가로 티도어(Tidore)의 원주민 공주(“recompence so rich and glorious”; 2.6.143)를 차지한 후, 자신의 영혼을 위협하는 공주의 우상숭배 요구(“death it selfe,” “pale dispaire,” “a thousand horrid ruines,” “hideous murmurs of weake soules”; 4.5.102-06)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녀를 기독교로 개종시킨다. 이 과정에서 아뮤지아는 국왕을 포함한 티도어 원주민 무리들을 감화시키며(“You[Armusia] have halfe perswaded me[the King] to be a Christian”; 5.5.66), 자연스레 왕위 계승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sup>7</sup>

아뮤지아의 극중 동료들이나 플레처의 17세기 관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모험담은 “모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수호함으로써”(redeeme, and vindicate [Portuguese] honour; 5.1.64), “명예로운 애국자이자 진정한 신사로 거듭나는”(you are a Gentleman, / An honest man, and you dare love your Nation; 5.1.60-61) 입지전적 인물의 모범적 전례이기도 하다. 물론 다른 등장인물들, 특히나 원주민들의 입을 빈다면 당연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도 하다. 그러나 플레처는 기사도와 궁정식 연애 모티프들을 극 전체에 걸쳐 유려하게 운용함으로써 일관되게 잘 짜인 플롯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타자의 목소리나 대안적 해석을 구조적으로 원천 봉쇄하면서 아뮤지아의 식민주의적 논리를 정당화한다. 이 과정에서 아뮤지아의 편력기는, 섬나라 공주 키사라(Quisara)가 주도하는 군사전(1-2막), 구애전(3막), 선교전(4-5막)으로 말끔하게 삼분된다.

이후 논문의 본문에서는 이같은 시련 극복담에 투영된 기사도 로맨스의 유희를 순차적으로 추적하면서, 그 변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의미를 살피게 될 것이다.

### 1. 1-2막: 상인 옷을 빌려 입은 기사 또는, 기사 탈을 쓴 상선단원

상대적으로 늦게 몰루카 군도에 상륙한 후발주자의 불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sup>6</sup> 이 지역과의 향신료 무역을 위해 1600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었고, 17세기 초 몰루카 행 상선단은 240 퍼센트에 달하는 이윤을 창출하기도 했다(Sutton 11).

<sup>7</sup> 이상 식민주의 맥락에서 요약한 작품 줄거리는 Im 220, 242-3참조.

고, 1-2막에서의 아뮤지아는 도착하자마자 티도어 공주를 위해 터나타(Ternata) 총독을 공격하고 포로로 갇혀 있던 티도어 국왕을 구출하는 신속한 군사행동을 통해 명성을 얻는다. 중세 기사도 로맨스에서 기사의 명예와 고귀함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의 용맹성이며, 기사의 무용담이 기사도 신화에서 가장 항구적인 특성이라 할 때(Burnely 9), 플레처의 주인공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 자격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인물이 가문이나 배경에 대한 언급 없이 등장해서 끝까지 혈통을 밝히지 않는 점이다. 즉, 중세 로맨스의 기사들에게는 필수적이었던 세습지위 확인이 이제는 불필요하고, 『혼 왕』(King Horn), 『덴마크 왕 해블록』(Havelok, the Dane) 등에 나타나던 귀족지위의 궁극적 회복에 대한 천착도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플레처가 극화한 공간에서, 개인의 명성과 지위는 수행평가를 통해서만 결정되고, 숨겨졌던 과거와 혈통을 밝히는 대신 그저 군사적 자질을 입증함으로써 신분 상승의 일차적 기쁨이 마련된다는 의미다.

몰루카 상륙 후 아뮤지아가 통과하는 첫 번째 시험은 티도어의 왕위 계승자로서 주관 뚜렷하고 목적의식 분명한 기사라 공주가 요구하는 모험여행이다. 다음 인용에서 볼 수 있듯, 그녀는 궁정의 귀부인처럼 구애자들에게 무용담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스스로를 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뮤지아가 티도어 궁정에 입성하도록 길을 터주게 된다.

**기사라.** 그대들의 결의를 다져줄 위험[을 찾아라]

하지만 이렇게는 말고. 이 경합에서는  
 내 앞에서 누가 나를 제일 사모하는지, 누가 아부에 제일 능한지  
 겨루는 것이 아니다. 나의 총애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지참하는 사랑과 왕좌를 즐기고자 한다면,  
 스스로 진가를 입증해서 나를 얻어야한다, 나를 위해 먼 길을 떠나고,  
 선부른 성질을 죽이며, 뿌리 깊고  
 은유하며 진실된 용맹함을 갖춰야 한다.

**QUISARA.** [Ye shall find] danger that shall start your resolutions,

But not this way; 'tis not contention,  
 Who loves me to my face best, or who can flatter most  
 Can carry me, he that deserves my favour,  
 And will enjoy what I bring, love and Majesty,

Must win me with his worth; must travel for me;  
 Must put his hasty rage off, and put on  
 A well confirm'd, a temperate, and true vallour. (1.3.120-28)

물론, 키사라가 귀부인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기사도적 미덕을 구애자의 기준으로 공공연하게 제시했지만,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애자의 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들을 경이롭고 불가능한 중세 로맨스식 모험으로 내모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지위로 원주민 귀족들과 포르투갈인들 양쪽을 동시에 조정해서, 몰루카 군도 내 소왕국들 사이 역학관계를 주도적으로 재편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Im 232). 그녀의 요구 사항은 터나타 총독(the Governor)에게 납치당한 티도어 국왕, 즉 자신의 오빠를 무력을 써서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터나타에 맞설 연합군을 일으킬 것까지도 종용한다. 기사도의 마상시합은 이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진 것이다.

또한, 스스로를 승자를 위한 상품으로 내놓은 키사라의 의도는 “고귀한 신사”(noble Gentleman; 1.1.108)로서 이미 전부터 그 “지위에 걸맞게 명예로운 구애”(honourable courtship, and becomes his rankes too; 1.1.112)를 하고 있던 고분고분한 연인 루이 디아스(Ruy Dias)를 간택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주의 계획을 뒤엎고 예상치 못한 승자가 되는 것은, 루이 디아스와 달리 귀족지위도 다른 어떤 이력도 없이 오로지 잠재력만 가지고 있던(“promises much noblenesses”; 1.1.121-26) 신출내기 아무지아다. 2막 2장에서 아무지아가 국왕을 귀환시키고 원치 않는 약혼자로 등장하자, 키사라는 그간 누렸던 무소불위 권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다. 샹카 라만(Shankar Raman)은 루이 디아스와 아무지아의 갈등이 젠트리 지주 계층과 중상주의를 내세운 부르주아 계층 간 경쟁을 재현한다고 지적하는데(142), 라만의 논리를 빌어 말하자면 플레처가 재현한 아무지아의 승리는 젠트리 계층으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아 챙기는 부르주아 계층의 미래를 투사하는 셈이다.

아무지아가 티도어 국왕을 구출하게 되면서, 포르투갈인 내부의 위계구조가 재편되고 몰루카 군도 내 정치 역학 관계 또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아무지아의 예상외 약진은 존재감 없는 국왕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 특히 키사라의 비위를 거스른다. 이는 루이 디아스를 위해 키사라가 마련했던 무용담을 아무지아가 가로챈

으로써, 공주를 섬긴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공주의 뜻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뮤지아는 최신 근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기사의 개인적 편력 여행을 비용 절감되는 군사 행동으로 바꿔버리고, “루이 디아스가 미처 입장하기도 전에 시장을 닫아버린다”(ending his Market before you[Ruy Dias] be up; 2.6.60). 키사라가 부과한 임무를 수행은 하지만, 그녀가 내세웠던 구애의 규범을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반한 자신의 자본가적 윤리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이는 궁정 내 위계를 누가 세우고 지배할지를 놓고 아뮤지아와 키사라가 벌이는 한판 승부로, 중세 기사도 로맨스에 내재되어 있던 무훈 규범과 궁정식 규범 간의 갈등이(Burnley 171) 보다 근대적인 플레처의 방식으로 재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뮤지아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자신의 용맹함만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마상 시합에 뛰어드는 대신, 상인 복색으로 적진에 들어가(“Suspectlesse have I travell’d all the towne through, / And in this Merchants shape won much acquaintance”; 2.2.9-17) 화약이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 치고 빠지는 근대적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벼락출세한 방랑자는 키사라가 애초에 요구했던 “신속한 무력전”(by force, and suddenly; 1.3.194)을 매우 효과적으로 치러낸다. 다시 말해,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근대적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터나타의 성과 마을들을 공략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섬 주민들은 너무나 빨리 제압되고 포로는 너무나 손쉽게 구출이 되기 때문에, 전 막에서 국왕이 취했던 인고하는 성자의 태도는 돌아보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결국 필시 무장 상선단 선원이었을 아뮤지아의 약진은 그가 얼마나 손쉽게 몰루카 사회를 뒤흔들고 원주민들을 하찮게 물리치는지에 정비례한다.

주인공 아뮤지아가 중세 기사의 특징을 일부 계승하고 있지만 그의 편력은 기본적으로 중상주의적이며, 이는 식민주의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지적한 바 있다. 플레처가 이 벼락출세하는 인물을 극에 집어넣은 것 역시도 몰루카 원주민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식민주의를 보다 쉽게 정당화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수아 노벨라 원작에서는 젊은 티도르 귀족인 살라마(Salama)가 포르투갈인들에 앞서 국왕을 구출하고 키세르(Quixaire)의 사랑을 얻기 때문이다(Neill 110). 즉, 원작에서 사랑의 승리자였던 원주민 귀족을 유랑하는 포르투갈 상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사도식 모험을 식민주의 맥락에 재배치한 결과라 하겠다.



## 2. 3막: 궁정식 구애, 혹은 겁탈

1-2막의 편력기사 무용담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뒤, 제 2차 수행평가 즉 구애 전쟁을 위한 3막에서 아뮤지아는 궁정식 사랑에 능통한 세련된 인물로 재등장한다. 플레처가 1-2막에서 재현한 아뮤지아의 원형은, 『워윅 경 가이』(*Guy of Warwick*), 『햄튼 경 베비스』(*Bevis of Hampton*), 『혼 왕』 등 대중 지향적 중세 로맨스에서 무공을 쌓아 자신보다 신분 높은 여인을 얻게 되는 주인공 기사들이라고 할 만 하다. 그러나 2막 이후의 아뮤지아는, 그의 예법 교육이 모험 여행과 신분 상승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로맨스 주인공 원형으로부터 급진적으로 멀어진다. 이전의 로맨스에서 하위 계급 출신 주인공들은, 예절을 채 다 익히지 못하고 서훈받거나 즉위하고, 이후 세련된 궁정인이 되기 위한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다(Ramsey 190-1). 반면 아뮤지아는 티도어 왕의 궁정에 입성하자마자 궁정인으로서 역할, 특히 열렬한 사랑에 빠져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구애자의 역할을 궁정식 연애 전범에 맞춰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플레처가 천착하는 것은 귀부인이 통제하는 궁정식 연애를 통해 귀부인의 요구에 맞춰 성장하는 기사가 아니라, 사회적 성공을 위해 이미 그 연애 규범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야망 가득한 모험가인 셈이다. 이 맥락에서 아뮤지아는 적합한 예의범절이 성취 지위의 선결 조건이었던 17세기 초반의 사회적 맥락(Burnley 207)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어쨌든, 개선 용사 아뮤지아가 키사라의 노여움을 산 것은 키사라가 의도했던 권력 구도를 완벽하게 전복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아뮤지아의 해결책은 “남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사랑하는 귀부인에게 철저히 복종하게 만드는”(Schultz 180) 궁정식 사랑의 법도에 맞춘 구애자 역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2막 이후 극의 초점이 둘의 남녀관계에 맞춰질 때, 아뮤지아는 위풍당당한 승자에서 가망 없는 청원자로 한 순간에 전락한다. 그는 자신을 거부하는 키사라(“the scornfull cruelty”, 3.2.9) 때문에 상사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역할로 3막 2장에서 재등장해서, 동료들에게 한참이나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해결책을 구하기도 한다(3.2.9-41).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공주와 그에 그저 따를 뿐이라는 아뮤지아 사이에

서, 1-2막에서 깨졌던 공주의 권위는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벵락출세한 아뮤지아 앞에서 공주인 키사라가 권위 회복 운운하는 상황은 실체로는 모욕적이다. 일단 키사라는 자신의 권위를 떨치기 위해 굳이 아뮤지아의 구애 의식 따위를 빌어 와야 하는 유약하고 남성 의존적인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인물은 브르타뉴 시가(*Breton Lais*) 등에서 능숙하게 독립적 권력을 구사했던 상속녀들을(*Radulescu 44*) 원형으로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미 공주이자 왕국의 계승자이며,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도 극 초반부터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And no waies bound to render up my actions, / Because no power above me can examine me”; 1.2.6-7). 더구나, 관객들 역시도 이미 전막에서 그녀가 자신의 사회적, 성적 권력을 통해 남성들의 영달을 통제함으로써 출세 지향적 등장인물들에게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귀부인이 기사에 비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양의 대상으로서 군림할 권리를 귀부인에게 부여하는 궁정식 사랑의 논리는 여성대상화 및 착취를 통해 계급 차이를 뛰어넘고자 하는 남성의 시도일 뿐이다(*Callahan 64*). 따라서 아뮤지아가 공주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구애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1-2막에서 그녀의 권력구도를 망쳐놓았던 행위보다 한층 더한 모욕이 된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족적인 사랑의 힘에 호소하는 그의 탄원 역시, 그들 사이 계층적 위계질서를 전복하려는 오만한 남성적인 요구일 뿐이다. 말하자면 아뮤지아의 상사병이나 격렬한 굴종의 맹세는 중세 로맨스의 구애자들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했던 구애 기법들(*Burnley 170-4*) 물려받아 극대화한 결과물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아뮤지아의 상사병이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단 그는 사랑 때문에 시름시름 앓으면서 연작 소네트를 쓰는 대신, 궁정식 (남성)연인의 수동적인 위치를 버리고 신속하게 상황을 주도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그는 시녀 파누라(*Panura*)를 보석과 진한 입맞춤으로 매수해 공주의 내실로 안내 받는다. 귀부인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남성의 자의적 결단이 궁정식 연애의 규율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뮤지아는 개의치 않는다. 키사라는 당연히 자신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아뮤지아의 무례하고 상스러운 행동에 진저리치지만, 습격해 들어온 아뮤지아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잘 준비된 궁정식 사랑과 복종의 맹세를 다시 읊어대기 시작하자 너무 간단히 그에게 유혹 당한다. 자신의 몸을 낮추는

신체적, 언어적 복종 행위를 적재적소에서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강간범이 순식간에 이상적인 연인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아뮤지아의 겸손함보다는 공주의 착각("I am Mistress of my selfe"; 3.3.4)을 부추길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증명할 뿐이다. 자신의 치명적 결례를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뮤지아는 키사라를 정결한 처녀의 전형인양 취급한다. "당신의 정결과 순결한 미덕이 그리 단단한 갑주이고 당신의 투명한 생각이 그리 높은 요새"라(Your honour and your vertues are such armours; / Your cleare thought such defences; 3.3.76-77), 나쁜 마음을 먹고 그녀의 내실에 들어온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뮤지아가 공주의 순진무구함을 찬양하면서 키사라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성적 매력을 송두리째 제거하고, 키사라를 성공적으로 무장 해제시킨다는 점이다(3.3.121-24) (Im 235). 이리하여 1-2막의 무용담에 이어, 여인의 사랑을 얻는 능력에 대한 2차 수행평가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고, 궁정식 연애 교본을 쥐락펴락하는 남성 주인공은 여기서도 역시 다시 한 번 출세를 위한 행로를 선점하게 된다.

### 3. 4-5 막: 개종의 힘, 또는 창녀로 처녀 만들기

하지만 4-5막에서 다시 등장하는 키사라는 순진무구한 처녀라기보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십분 이용해 남성을 능란하게 다루는 요부에 가깝다. 이 개방적이고 매혹적인 이방인 공주는 우나(Una)보다는 두에사(Duessa)를 먼저 연상시킨다. 이렇듯 요부와 처녀 사이를 불안정하게 오가는 키사라의 이미지는 일단은 서양문학 전통에서 두드러지는 여성혐오적 이분법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처럼 모순적인 여성 재현은 궁정식 예의범절이라는 세속적 담론과 기독교 신학 교리 간에 벌어지던, 사회 통제권을 둘러싼 지속적 논쟁에 크게 기인한다. 자족적인 궁정식 규범과 귀부인에 대한 감각적이고 준종교적인 숭배에 대한 교회의 반감이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중세 로맨스 역시도 종종 이러한 양자 충돌을 재현하곤 했다는 번리의 지적은 이 맥락에서 되짚어볼 만하다(179-202).

플레처는 4-5막을 통해, 귀부인의 애정을 좇는 기사의 모험을 영적 구원을 원하는 기독교인의 시련 가득한 여정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기존 로맨스에 내재되

있던 성숙 갈등을 해결한다. 이는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이나 『선녀여왕』의 알레고리를 연상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동시에 식민주의적 과업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4·5막에서 아뮤지아가 해결하는 최종 과제는 이 치명적인 요부와와의 사랑으로부터 탈출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해 몰루카 군도에서 방랑중인 기독교도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요부를 버리고 도망치거나 그녀를 죽여 제거하는 것이 과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그는 이 요부를 개종시켜야 한다. 극중 기독교적 논리에 따르자면, “올바른 종교”는 위험한 요부를 감화시켜 신심 깊은 처녀로 바꾸는 힘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상시합에서 이 기거나 곤경에 처한 공주를 구출해서 아내로 맞이하던 전통적 로맨스의 기사는 이제, 혈혈단신으로 우상숭배의 현장에 뛰어들어 목숨 걸고 이방인 공주에게 전도하는 열혈 광신도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듯, 이교도 여인의 멸절이 아닌 개종을 택하는 플레처의 논리는 상당 부분 식민지를 여성으로 유럽인 항해자를 남성으로 재현하고 정복과 통상을 결혼으로 표현하는 당대의 상징체계에 기인한 바 크다.<sup>8</sup> 문제는 3막에서 남주인공이 거둔 사랑의 승리가 4·5막에 이르면 그 자신을 묶는 궁극적인 족쇄가 된다는 점이다. 몰루카 사제로 변장한 터나타 총독과 키사라가 나누는 4막 2장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이 공주는 이제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 삼아 이번에는 선교전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키사라.** 나와 같이 올라가서 더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대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는지 보여주리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묶어 놓는지도.

**총독.** 그 족쇄를 단단히 지키시오.

그들을 묶은 그 사슬을 끌어와

우리의 신들과 고리로 묶어 섬기게 만들던지

그게 안 되면 딸이여 그 사슬로 그들의 연심을 죄어 부서뜨리시오

<sup>8</sup> 타인종 간 로맨스 및 결혼에 대한 근대 초기의 환상 전반에 대해 초기 식민주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들로는 Hulme 17-32; Loomba, “Cultural Difference” 164-191; McClintock 23-32; Montrose 117-217; Scholz 148-73 참조.

**QUISARA.** Go up with me, where wee'l converse more privately;

I'le shew ye shortly how I hold their temper;

And in what chaine their souls.

**GOVERNOUR.** Keep fast that hold still,

And either bring that chaine, and those bound in it,

And linke it to our gods, and their faire workshops,

Or daughter pinch their hearts a peece with it; (4.2.168-73)

이 대화에서 증명되듯, 아뮤지아의 마지막 시련에서도 초반 주도권은 키사라에게 있다. 그녀를 개종시키는 것은 남주인공이 기도교도로서의 영혼을 걸고 가야하는 위험한 모험여행이다. 상대가 개종하든, 자신이 대신 개종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든, 양자택일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다.

당대의 영국 관객들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방인 공주는 전대의 기사도 로맨스에서 무수히 나타나 기사들을 홀리곤 하던 아름다운 마녀들을 상기시켰을 터이다. 아뮤지아의 편력 제 1단계가 1-2막의 터나타 정복 수행평가였고 제 2단계가 3막의 궁정식 구애 수행평가였다면, 최종 마무리는 4-5막의 전도능력 수행평가에 달려 있다. 그는 이제 전도를 통해 마녀를 정복하는 외방선교사로 탈바꿈한 셈이다. 아뮤지아의 전도능력은, “(종교적) 정절에 대한 극한의 시험”(the utmost trial of your[his] constancy; 4.5.25)을 통해 입증되고, 그의 궁극적 승리는 앞서 획득한 세속적 전리품들을 전적으로 거부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sup>9</sup>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건 이 마지막 모험에서, 기꺼이 그의 아내가 되리라는 키사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뮤지아는 공주의 우상숭배 요구를 강하게 거부한다. 대신 그는 끊임 없이 유혹하며 자신을 곤경에 밀어 넣는 이 여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이제 아름다운 이방인 미녀는 유럽인 남자 앞에서 죽음의 신처럼 보이며(“It looks like death it selfe, to which 'twou'd lead me”; 4.5.102), 그녀의 속삭임에서는 유혹에 넘어간 영혼이 웅성거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in your tongue heare fearefully / The hideous murmurs of weake soules”;

<sup>9</sup> 부귀영화의 유혹 앞에서 기독교를 버리고 타종교로 돌아서는 영국인들에 대한 당대의 수많은 일화를 보건데, 당대 관객들에게 아뮤지아의 선택은 옳지만 쉽지 않은 결단으로 보였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개종 일화에 대해서는 Samuel Purchas, *Hakluytus Posthumus*. Vol 6. (Glasgow: Maclehose and Sons, 1905) 중 “The Exchange and the Pirates” 등 참조.

## 4.5.102-06).

이 개종 전쟁에서, 여자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없다거나(4.5.107), 목숨보다 중요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5.2.74-75) 아뮤지아의 반응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성적인 관객에게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자신의 신앙과 국민을 근거 없이 악마 취급하는 아뮤지아에게 분노하는 대신, 그에게 깊이 감화되었다 주장하면서 그의 인격과 닮은 그의 종교로 개종하겠다고 나서는 키사라 쪽이다(“Your[Armusia’s] faith, and you religion must be like ye... / ...I do embrace your faith sir, and your fortune”; 5.2.118-21). 맹목적인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고향지르며 독설을 토해낼 뿐 개종의 신학적, 논리적인 당위성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는 아뮤지아를 감안하면 키사라의 개종 결심은 더욱 경이롭다. 상당히 편리하게도, 두에사처럼 보였던 플레처의 키사라가 알고 보니 길을 잃고 헤매는 우나였던 셈이다.

아뮤지아 안에서 “진정한 명예의 전당”(The temple of true honour)을 발견했기 때문에 개종한다는(5.2.105-16) 키사라의 변에는 논리적, 극적 일관성이 일체 결여되어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인으로 태어났다고 믿게 된 장본인에게 이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아뮤지아 덕에 개종해서 순결한 처녀로 다시 태어났음과 기꺼이 그와 더불어 영광되게 순교할 것임을 선언한다(“A virgin won by your faire constancy, / And glorying that she is won so, will dye by ye”; 5.2.106).

“순결한 처녀”는 3막의 구애 장면에서 아뮤지아가 키사라에게 자각시키려 이미 한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정체성이다. 그녀의 “재탄생”은 터나타 총독이 마지못해 인정하듯 몰루카 군도 전체를 뒤흔드는 효과를 보이는데(5.2.139), 이는 그녀의 새로운 종교가 논리를 초월해 아뮤지아의 대의와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재탄생은 아뮤지아의 신분 상승에 대한 최종적 확인일 뿐 아니라, 바로 다음 장에서 포르투갈인들이 저지르는 가차 없는 티도어 공격(“they [the Portuguese] push down Pallaces, they tosse our little habitations like whelps, like grindle-tails, with their heeles upward”; 5.3.14-16)을 정당화한다. 동시에 아뮤지아의 신앙적 승리는 그와 포르투갈 선단 전체에게 재정적 구원이 된다. 아뮤지아는 키사라를 소유함으로써 그녀가 계승하게 될 티도어의 통치권과 재산권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기타 포르투갈인들은 키사라의 개종을 통해

손쉽게 물리친 터나타 총독 대신 향신료 무역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5.74-85).

이 맥락에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승리는 신학적 차원보다 중상주의적 맥락에서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Neill 99-132). 따라서 몰루카 군도 내 외세의 역사와 영향력을 지적하는 터나타 총독의 해안 역시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경계라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Im 249).

**총독**(변장한 성직자로 나타나). 이 사람들이 여기 도착하던 모습이 보이노라,  
 궁핍하고, 비바람에 시달리고, 길을 잃고, 굶주리고, 쇠약해져,  
 그들의 선박 또한 그들처럼 더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교역과 안위를 오래간 청했다,  
 기분을 전환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간청이 수락되어, 그들이 상륙했고, 그리하여  
 부강해져, 이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섬의 고향과 자유를  
 빨아먹고, 두려움에 떨게 하였나니,  
 여기 성곽을 보라, 그대의 티도어 왕국,  
 이 이방인들을 알기 전엔 행복했던 이 마을의  
 턱 밑까지 저들이 쌓아올린 저 요새가  
 명량한 이 나라를 찍어 누르는 것을.

**THE GOVERNOR** (as the disguised priest). These men came hether as  
 my vision tels me,  
 Poore, weatherbeaten, almost lost, starv'd, feeble,  
 Their vessels like themselves, most miserable;  
 Made a long sute for traffique, and for comfort,  
 To vent their childrens toyes, cure their diseases:  
 They had their sute, they landed, and too th'rate  
 Grew rich and powerfull, suckt the fat, and freedome  
 Of this most blessed Isle, taught her to tremble;  
 Witnesse the Castle here, the Cittadell,  
 They have clapt upon the necke of your Tidore,  
 This happy town, till that she knew these stangers,  
 To check her when shee's jolly. (4.1.44-55)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터나타 총독은 저항하는 원주민의 목소리를 시문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극중 인물이다. 그러나 키사라의 개종과 동시에 포르투갈의 무장상선단원들에게 티도어가 함락되면서, 이 총독은 거짓 선지자로 고발되고 소위 명예로운 기독교도들에게 통치권을 박탈당한다. 이윤 추구를 위한 선교전쟁에서 원주민의 목소리는 오로지 제압당하기 위해서만 등장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 III. 새로운 궁정, 또는 국민/국가주의

주목할 것은 3단계에 걸친 편력 수행평가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즈음, 이때까지는 철저히 개별적 모험가였던 아무지아가 일견 급작스럽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극중 포르투갈인들은 전시대의 궁정 공동체에서 처럼 호혜적 충성과 신뢰가 가능한 집단에 대해 점점 더 의식하게 되는데, 아무지아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사실 이는 로맨스의 전통에서 보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기사도 로맨스의 주인공이 자신의 기사 자격을 입증하는 순간 공인된 명성을 지닌 다른 기사들과 교류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기 때문이다(Hardman 4). 예를 들어 『아씨왕의 죽음』에서 윈탁 공동체가 그 어떤 기사 개인보다 중요한 것처럼, 중세 기사도 로맨스에서 기사 개개인이 성취한 명예는 궁극적으로는 그가 속한 궁정 공동체의 몫이었다(McCarthy 49). 따라서 플레처의 편력하는 주인공 역시 자신의 모험이 성공리에 끝날 즈음해서 귀속할 공동체를 찾게 된 것 뿐이다.

문제는 아무지아가 공동체로 귀환했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그가 주도하는 공동체의 성격일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 기사도 로맨스에서 편력 기사 주인공의 모험 여행은 당대의 통치 공동체로서의 궁정을 궁극적으로 건설, 수호, 용인, 점검, 정당화, 혹은 전복하는 다양한 기능을 보여준다. 플레처의 이야기 구조 역시도, 남성 주인공이 모험을 끝내고 진입하게 될 지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편성하고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이상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키사라의 개종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우월성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 공주가 신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정숙한 여인으



로 거듭나면서 아뮤지아의 식민 개척을 공인할 때, 무뢰한과 다를 것 없던 아뮤지아 일당들은 자연스럽게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여행 중인 신사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극의 초반부에서 간간히 언급된 바 있는, 남성 주인공이 그 모국에서 어떤 집안 출신이었는지 모르다거나, 그가 누구의 궁정에 속(하지 못)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들은 극의 종결부에 이르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관심두지 않는 문제가 된다.

새롭게 신사의 정체성을 획득한 아뮤지아 무리는 루이 디아스 무리를 제치고 티도르 궁정 중심부로 진출한다. 향료 무역을 독점하고 자신을 축적할 기회를 획득한 이들에게, 귀국 후 모국에서 계층 간 상향 이동이 가능해진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극중 루이 디아스가 중세 로맨스의 이상이었던 이타적 기사상이나 16세기 로맨스의 이상이었던 국가통치에 헌신하는 귀족상(Barron 4)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계급적 기반이 귀족 계층 끝자락에는 걸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작품 내 아뮤지아의 절대적인 승리가 유럽 사회 기존 지배층을 축출하는 신흥 부르주아지의 승리에 대한 플레처의 예견 또는 열망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sup>10</sup> 그렇다면, 플레처가 풀어야 다음 문제는 해외 이윤창출의 현장에서 실격하고 그 결과 자국 내 기득권마저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해야 하는 집단, 즉 루이 디아스로 대변될 기존 지배층의 예견된 반발이다. 이들을 제압하기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계층 간 갈등에 대처하는 플레처의 대안은 국민국가주의이다.

이에, 아뮤지아가 주도하는 공동체는 국가공동체로 규정되고, 아뮤지아의 성과는 국가의 영광으로 이상화되며, 아뮤지아 구출을 국민의 과업으로 각인된다. 예를 들어 5막에 이르면, 이전까지는 개인별로 활동하거나 계층별로만 무리 지었던 극중 포르투갈인들이 난데없이 국가의 위상과 국민으로서의 도리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다. 아뮤지아가 거쳐가는 완벽한 투사-연인-선교사의 여정 중 마지막 부분인 원주민과의 종교전은 한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불화에 휩싸였던 포르투갈인들 사이에서 통합적인 동료의식을 끌어내는데 지대하게 기여한다. 개종을 거부하고 체포된 아뮤지아를 구출하기 위해 포르투갈인들은 반 티도어 연합군까지 조직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연합군이 바로 국가를 대표

<sup>10</sup> 아뮤지아를 신흥부르주아지로 규정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앞서 이 논문의 8쪽에서 인용한 라만(142)의 주장 다시 참조.

하는 명예로운 공동체로 명명된다는 점이다.

**피니에로.** ... 당신은 신사이며

명예로운 사내이니, 용기 있게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이 탄압받을 때라도 용기 있게 절개를 지켜  
조국을 위해 조국을 구출하러 나서라.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명예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은 사내다움 없는 잡소리일 뿐이다.

**PYNIERO.** ... you are a Gentleman,

An honest man, and you dare love your Nation,  
Dare sticke to vertue though she be opprest,  
And for her owne faire sake step to her Rescue:  
If you...[N]ot vindicate your honour,  
Your life will be a murmure, and no man in't. (5.1.55-65)

피니에로는 아뮤지아 구조대는 바로 포르투갈 국군이라는 논리로 루이 디아스 역시 합류하도록 설득한다. 아뮤지아를 불구대천 원수로 여기는 루이 디아스지만, 국가주의 논리 앞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협조를 맹세하고, 이로써 계층 간 불협화음은 말끔히 정리된다.

최근 중세 연구자들은 영국적 정체성의 기원을 중세 기사도 로맨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고, 중세 로맨스들이 국민국가(주의)에 대해 무엇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의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여왔다.<sup>11</sup> 예를 들어, 제럴딘 행(Geraldine Heng)의 『사자왕 리처드』 분석은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영국”(imagined community of England; 67)의 가능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제공한다. 플레처의 『섬나라 공주님』은 이처럼 근대 이전에도 존재했을 법한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환상을 이전시대 기사도 로맨스로부터 물려받는다. 다른 한편 이 드라마는 기존의 지배 계층구조를 배척하는 근대적 국가 공동체에 대한 열망 역시 동시에 홍보한다. 주목할 부분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 작품의 말미에 암시는 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는 국민 정체성이 모험을 빙자

<sup>11</sup> 중세 국가주의(nation/alism) 연구로는, Crofts & Rouse 79-95; Field, *Transformation* xiii; Heng 63-114; Rouse 69-83; Warm 87-100 참조.

한 살육과 정복, 연애를 가장한 겁간과 수탈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플레처는 국내 계급질서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교도와 이방인 여성에 대한 착취가 필연적이라고, 로맨스 모티프를 빌어 관객을 선동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청중은 아뮤지아의 여정이 끝어낸 국민국가주의를 통해, 이후 확립될 근대적 국민국가의 폭력적, 차별적 실체를 더욱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예견할 수 있다. 아뮤지아가 새롭게 차지한 궁정은 교역을 위해 살상하고 정염을 이유로 겁탈하고 이윤을 위해 선교하는 가치 체계를, 애국을 빌미로 정당화할 때야 비로소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플레처의 극에 전유된 전복적이면서도 반동적인 로맨스 장르의 복잡다단한 면모를 이제는 당대의 제국주의적 맥락에서 다시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제어 | 기사도 로맨스, 수습 기사, 중상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근대국가

## 참고문헌

- Barron, W. R. J. *English Medieval Romance*. London: Longman, 1987.
- Burnley, David. *Courtliness and Literature in Medieval England*. London: Longman, 1998.
- Callahan, Anne. *Writing the Voice of Pleasure: Heterosexuality without Women*. New York: Palgrave, 2001.
- Crofts, Thomas H., and Robert Allen Rouse. "Middle English Popular Romance and National Identity." *A Companion to Medieval Popular Romance*. Ed. Raluca L. Radulescu and Cory James Rushton. Cambridge: D. S. Brewer, 2009. 79-96.
- Field, Rosalind, ed.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in Medieval Romance*. Cambridge: D. S. Brewer, 1999.
- . "Popular Romance: The Material and the Problems." *A Companion to*

- Medieval Popular Romance*. Ed. Raluca L. Radulescu and Cory James Rushton. Cambridge: D. S. Brewer, 2009. 9-30.
- Fletcher, John. *The Island Princess. The Dramatic Works in the Beaumont and Fletcher Canon*. Ed. George Walter Williams. Vol 5. Cambridge: Cambridge UP, 1966.
- Gaunt, Simon. "Romance and Other Genr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Medieval Romance*. Ed. Roberta L. Krueger. Cambridge: Cambridge UP, 2000. 45-59.
- Hanning, Robert, and Joan Ferrante, eds. *The Lais of Marie de France*. Baker Academic, 2008.
- Hardman, Phillipa, ed. *The Matter of Identity in Medieval Romance*. Cambridge: D.S. Brewer, 2002.
- Heng, Geraldine. *Empire of Magic: Medieval Romance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Fantasy*. New York: Columbia UP, 2003.
- Hulme, Peter. "Polytropic Man: Tropes of Sexuality and Mobility in Early Colonial Discourse." *Europe and Its Others*. Vol. 2. Ed. Francis Barker, Peter Hulme, Margaret Iverson and Diana Loxley. Colchester: U of Essex P, 1985. 17-32.
- Im, Chung-in. "'They Had Their Suite, They Landed': Sexual Contentions and Religious Conversions in *The Island Princess*." *SESK* 9 (2005): 219-58.
- Kay, Sarah. "Courts, Clerks, and Courtly Love." *The Cambridge Companion to Medieval Romance*. Ed. Roberta L. Krueger. Cambridge: Cambridge UP, 2000. 81-96.
- Loomba, Ania. "'Break her will, and bruise no bone sir': Colonial and Sexual Mastery in Fletcher's *The Island Princess*." *Journal for Early Modern Cultural Studies* 2:1 (2002): 68-108.
- . "Shakespeare and Culture difference." *Alternative Shakespeare* 2. Ed. Terence Hawkes. London: Routledge, 1996. 164-91.
- Loomis, Roger Sherman, and Laura Hibbard Loomis, eds. *Medieval Romances*. New York: Modern Library, 1957.
- Malory, Thomas. *Le Morte Darther: The Winchester Manuscript*. Ed. Helen Cooper. Oxford: Oxford UP, 2008.
- McCarthy, Terence. "*Le Morte Darthur* and Romance." *Studies in Medieval English Romances: Some New Approaches*. Ed. Derek Brewer. Cambridge: D.S. Brewer, 1988. 148-75.

- McClintock, Anne. *Imperial Leather: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Colonial Context*. New York: Routledge, 1995.
- McDonald, Nicola, ed. *Pulp Fictions of Medieval England: Essays in Popular Romance*. Manchester: Manchester UP, 2004. 1-21.
- Milton, Giles. *Nathaniel's Nutmeg: Or the True and Incredible Adventures of the Spice Trader Who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London: Penguin, 2000.
- Montrose, Louis A. "The Work of Gender in the Discourse of Discovery." *New World Encounters*. Ed. Stephen Greenblatt.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3. 117-217.
- Neill, Michael. "'Material Flames': The Space of Mercantile Fantasy in John Fletcher's *The Island Princess*." *Renaissance Drama* 28. Ed. Jeffrey Masten and Wendy Wall. Chicago: Northwestern UP, 1999. 99-132.
- Pearsall, Derek. "The Development of Middle English Romance." *Studies in Medieval English Romances*. Ed. D. Brewer. Cambridge: D.S. Brewer, 1988. 11-36.
- Purchas, Samuel. *Hakluytus Posthumus*. Vol 6. Glasgow: Maclehose and Sons, 1905.
- Radulescu, Raluca L., and Cory James Rushton, eds. *A Companion to Medieval Popular Romance*. Cambridge: D.S. Brewer, 2009. 1-8.
- Raluca, L. Radulescu. "Genre and Classification." *A Companion to Medieval Popular Romance*. Ed. Raluca L. Radulescu and Cory James Rushton. Cambridge: D. S. Brewer, 2009. 31-48.
- Raman, Shankar. "Imaginary Islands: Staging the East." *Renaissance Drama New Series* 26 (1995): 131-61.
- Ramsey, Lee C. *Chivalric Romances: Popular Literature in Medieval England*. Bloomington: Indiana UP, 1983.
- Rouse, Robert. "English Identity and the Law in *Havelok the Dane*, *Horn Childe and Maiden Rimmild* and *Beues of Hamtoun*." *Cultural Encounters in the Romance of Medieval England*. Ed. Corinne Saunders. Cambridge: D. S. Brewer, 2005. 69-84.
- Scholz, Susanne. *Body Narratives: Writing the Nation and Fashioning the Subject in Early Modern England*. London: Macmillan, 2000.
- Schultz, James A. *Courtly Love, the Love of Courtliness, and the History of Sexuality*. Chicago: U of Chicago P, 2006.
- Shepherd, Stephen H. A., ed. *Middle English Romances*. New York: Norton, 1995.

- Smith, D. K. *The Cartographic Imagination in Early Modern England: Rewriting the World in Marlowe, Spenser, Raleigh and Marvell*. Aldershot, UK: Ashgate, 2008.
- Spenser, Edmund. *The Faerie Queene*. Ed. Thomas P. Roche and C. Patrick O'Donnell. London: Penguin, 1987.
- Sutton, Jean. *Lords of the East: The East India Company and Its Ships, 1600-1874*. London: Conway Maritime Press, 2000.
- Vinaver, Eugene. *The Rise of Romance*. Oxford: Clarendon, 1971.
- Warm, Robert. "Identity, Narrative and Participation: Defining a Context for the Middle English Charlemagne Romances."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in Medieval Romance*. Ed. Rosalind Field. Cambridge: D.S. Brewer, 1999. 87-100.
- Williams, George Walton. Textual Introduction. *The Island Princess. The Dramatic Works in the Beaumont and Fletcher Canon*. Vol 5. Cambridge: Cambridge UP, 1966. 541-51.
- Winny, James, ed.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Buffalo, NY: Broadview, 1995.

**ABSTRACT****The Proto-Colonial Implications in the Early Modern Dramatic Appropriation of Medieval Knight-errantry****Chung-in Im**

This paper aims to read closely how John Fletcher's *The Island Princess* (1619-21) tunes up such motifs as knight-errantry and courtly love from medieval romance, as he dramatizes the contemporary social aspirants engaged in oversea exploitations.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ways in which medieval romance, with its inherent connection between personal achievement and courtly membership, provides a rich tradition for early modern English plays, and then introduces the specific ways in which *The Island Princess* utilizes the generic features of chivalric romance in order to renegotiate the contemporary social mobility in proto-colonial terms. The paper in doing so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how the play offers one of the most revealing examples where a knight errant bound for a sacred quest in an enchanted forest is changed into a vagabond merchant looking for profits on South Asian islands. The paper then goes on to conclude that the play's fantasy about Armusia's adventure in fact means a downright promotion of mercantile empowerment, in which one could foresee the imperial nationhood in making from outside of England.

**Key Words** | chivalric romance, errant merchant-knight, mercantilism, colonialism, imperialism, Nationhood